



제주 함덕관광지구 내 ‘제주 대명리조트’



전북 부안군 변산 대명 리조트

전국 산·바다 있는 곳엔 ‘대명’ 이 있다

설악·경주·제주 등 9곳 보유
총 5814실··국내 최대 레저업체

대명리조트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최대 레저업체로 부상한 ㈜대명레저산업의 리조트 브랜드다. 1987년 ‘설악 대명리조트’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서 9개의 직영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홍천 비발디파크’가 대표적인 메인 리조트다. 이외에 양평·단양·설악·경주·양양·제주·변산·홍천 소노펠리체 등에서 5814실의 객실과 부대시설을 운영 중이다.

올 여름 전국의 산과 바다, 그리고 첨단 시설이 어우러진 곳에서 스트레스를 풀어 보고 싶다면 대명리조트에 시간을 맞춰볼 만하다. 설악 대명은 맑고 투명한 동해바다와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경, 아담한 워터파크가 특징이다. 683객실에 골프장도 갖춰졌다. 병풍 같은 설악산과 시원스런 동해를 보면서 라운딩이 가능하다.

모처럼 소백산, 금수산, 단양 8경과 제천 10경, 신라적성비, 향산석탑 등을 둘러보고

싶다면 단양 대명리조트로 목적지를 잡아 보는 것이 좋다. 물놀이 테마파크인 아쿠아월드도 있다. 수도권 가까운 곳을 원한다면 양평 대명리조트를 추천할 만하다. 서울에서 40분 거리인 남한강 상류변에 있다. 198개의 객실과 20여개의 부대시설로 구성된 아담한 리조트다.

영남권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 경주 대명리조트에 눈을 맞춰 보는 게 좋을 듯하다. 명활산 성터 아래에 지어졌다. 수학여행 등 옛 추억을 더듬어볼 수도 있다. 경주 고분의 이미지를 살린 건물 디자인 덕분에 신라의 옛 성에 온 듯한 분위기가 풍긴다. 곳곳에 세워진 신라시대의 상징적인 조각품과 리조트 건물의 조형미도 잔잔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417객실 규모다.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제주 대명리조트가 눈여겨볼 만하다. ‘동양썬라이즈리조트’를 인수해서 대명으로 브랜드를 론칭한 것으로 함덕관광지구에 들어서 있다. 이국적 외관으로 지어진 특급 호텔급 리조트로 전체 242객실 규모다. 제주공항에서 20분 남짓이면 닿는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변산·양양 쏘비치·홍천 소노펠리체 ‘주목’

전국 9곳의 대명리조트 가운데 변산 대명리조트, 양양 쏘비치, 홍천 소노펠리체 등 3곳은 특별히 주목을 끄는 곳으로 꼽힌다. 모두 최근 3년 새 완공된 이른바 ‘신상리조트’인 데다 입지·부대시설 등에서 차별화가 뚜렷해 유난히 인기가 높다.

양양·변산 리조트는 동해와 서해안에 ‘해양리조트’라는 컨셉트로 지어졌다. 양양 리조트에는 ‘쏘비치 리조트’라는 독립적인 이름을 붙였다. 양양 오산해수욕장의 8만2500㎡(2만5000평) 부지에 고급 빌라·콘도·호텔 등을 혼합한 형태로 건설됐다. 고급 빌라와 노블리안 콘도에 마련된 지중해풍 테라스와 월풀에서는 시원스런 동해의 장관을 한눈에 즐길 수 있다. 건물 들도 스페인 남부지방 건축 양식으로 설계돼 마치 스페인 해안마을에 온 듯한 분위기를 풍긴다. 아쿠아월드와 해수사우나도 갖췄다.

전북 부안의 격포 해수욕장에 지어진 ‘변산 대명리조트’도 신선함이 물씬 풍긴다. 바다·건축·일몰이 변산리조트의 3대 특징이다. 프랑스 북부의 노르망디 해변을 모티브로 설계된 건물 양식이 이색적이다.

건물 상층부에는 ‘클라우드9(Cloud9)’란 이름의 호텔을 배치해 콘도와 호텔이 공존하는 방식을 택했다. 객실 가득히 쏟아지는 바다 풍경과 저녁 무렵이면 환상적인 일몰 장면이 일품이다. 노천욕이 가능한 워터파크인 아쿠아월드도 있다.

홍천 소노펠리체는 대명레저산업이 야심차게 개발한 VVIP급 리조트다. 단순한 리조트콘도가 아닌 ‘세컨드 하우스’ 개념을 담아서 회원들이 일정 기간 정주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따라서 고급 주택의 대명사인 테라스하우스(56채), 펜트하우스(24채) 등이 80채나 들어서 있다. 타워형 콘도도 고급 객실인 노블리안(424실)으로만 지어졌다.

부대시설도 일반 고급 주택 단지 수준으로 맞췄다. 자연 친화적 산책로, 생태탐방로, 자연체험관, 문화체험관은 기본이고 승마·골프·스파테라피까지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게 꾸몄다. 회원들에게는 모든 일정을 수행비서처럼 도와주는 전문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야외공연장·미술관에서 연중 문화 이벤트가 펼쳐진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변산 리조트 등 3곳 회원권 분양

대명레저산업이 현재 분양 중인 회원권은 홍천 소노펠리체와 홍천 비발디파크 첼리동(일반 콘도·신축 중), 변산 리조트 등 3종류다. 소노펠리체는 실버(1억830만원), 골드(1억3650만원) 등 2개 타입이 있다. 홍천 첼리동과 변산 리조트는 패밀리형(2100만원·66㎡형)과 스위트형(2970만원·92㎡형) 등 두 개 타입을 팔고 있다. 회원권을 구

입하면 해당 콘도는 물론 전국의 직영 리조트를 최소한의 사용 요금만 내고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또 기존 9곳의 직영 리조트 외에 추가로 건설 중인 거제도·여수시 북합리조트도 이용할 수 있다. 거제도 리조트는 2013년 개장 예정으로 한려수도 중심권에 지어진다. 여수 대명리조트는 2012년 여수박람회에 맞춰 선보인다. (02)555-0448

